한국학 제 43권 제 2호 통권 159호 109-148쪽
doi: 10.25024/ksq.43.2.202006.109

『황제내경(黃帝內經)』과 『동의보감(東醫寶鑑)』 정기신(精氣神)론의 명리학적 적용 고찰

김만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명리학 전공
ware4u@dongbang.ac.kr

Ⅰ. 머리말
Ⅱ. 『황제내경』과 『동의보감』 체계와 내용
Ⅲ.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의 정기신론
Ⅳ. 정기신론의 명리학적 적용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중국의 고대 양생가(養生家)들은 인간 생명의 기원은 정(精)이고, 이를 유지하는 원동력은 기(氣)이며, 생명의 표현은 신(神)의 활동이라며 정기신(精氣神)을 인간 생명의 삼보(三寶)로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정기신은 동양의학만의 독특한 개념이며, 동양의학의 근간은 『황제내경(黃帝內經)』에서 비롯되고 형성되었다.

『황제내경』에서 '정'과 '기', '정'과 '신'에 대해 언급은 하고 있었지만 '정기신'이라는 사람 몸의 근본 체계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황제내경』의 내용을 통해 '정기신'의 상호 관계를 추출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 몸의 근본 체계를 '정기신'으로 보는 관점은 『황제내경』에서 시작되었으며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의서(醫書)와 비교해 『동의보감』의 독특성은 바로 사람 몸을 이루는 근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기신'이라는 구조로 보고 있는 점이다.

사주명리(四柱命理)는 일월오성(日月五星)·28수(宿) 등 천체의 운행을 포함한 자연의 질서와 그 질서에 상응하는 인사(人事) 관계를[1] 음양의 소식(消息)과 오행의 생극제화(生剋制化)를 통해 해명하려는 음양오행론을 정립하고 간지력(干支曆)을 창조했던 중국과 그 주변국가(한국·일본)에서,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간지(干支)로 치환한 후 일간(日干)을 중심으로 그 상호관계를 해석하여 인간 삶의 길흉과 관련된 빈부·귀천·성패·요수(夭壽) 등의 차별함

1 천인감응적 세계관으로 천인합일(天人合一) 또는 천인상감(天人相感) 사상이라 말한다. 천(天)으로 대표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서로 단절·고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유기적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을 추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언 체계이다.[2]

사주명리에서 사주 주인공인 일간(日干·日主)과 다른 간지(干支)와의 음양의 소식과 오행의 생극제화 관계를 가려서 부모·형제·배우자·자식과 같은 가족·혈연관계를 비롯하여 사회적 지위·명예, 인간관계, 지식·기술, 의식주·재산, 권리·의무, 수명·건강 등 인간생활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해석하는 것을 십성(十星)이라고 한다. 십성을 일간인 나[我]를 중심으로 둘씩 묶어 그 관계를 배열하면 '아(我)—비겁(比劫)→식상(食傷)→재성(財星)→관성(官星)→인성(印星)'이 된다.[3] 이를 육신(六神)이라고 하는데 나[我]와 비겁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생하는 관계이며 하나를 건너뛰면 극하는 관계이다.

정은 기의 전제가 되고, 기는 신의 전제가 되고, 신은 정의 전제가 되며 상응(相應)한다는 점에서 사람 생명[몸]의 '정기신' 관계는 명리학(命理學)에서 사람 운명(길흉)의 해석 요소인 '아비식재관인(我比食財官印)' 관계와 매우 유사한 개념과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본 글에서는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의 정기신과 명리학에서 육신 계통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기신론을 명리학의 육신[십성] 해석에 적용하는 문제에 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4]

---

2 김만태, 「명리학의 한국적 수용 및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12쪽.

3 일간인 나[我]를 중심으로 십성(육신) 관계를 보지만 다른 간지를 중심으로 볼 수도 있다.

4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의 정기신론에 관한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은데 박기진(「『黃帝內經』의 精氣神 硏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송기수·김종두(「『黃帝內經』의 精·氣·神에 관한 小考」, 『대체의학회논문지』 제3권 제2호(2014)), 국순호(「『東醫寶鑑』의 精氣神에 關한 文獻的 考察」,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8)), 고희상(「『東醫寶鑑』의 生命觀 硏究: 精·氣·神을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 등이 있다. 명리학에서 십성과 육신에 관한 연구도 많지 않아서 김종민((「命理學 六親論에 관한 硏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이상천(「『適天髓闡微』「六親論」에 관한 硏究」,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이재승·김만태(「사주 십성(十星)의 계량화(計量化)와 활용에 대한 고찰」,

Ⅱ. 『황제내경』과 『동의보감』 체계와 내용

1. 『황제내경』 체계와 내용

『황제내경(黃帝內經)』이라는 책 이름이 최초로 나타나는 문헌은 『한서(漢書)』「예문지(藝文志)」로서, 방기략(方技略) 의경(醫經)부에 '黃帝內經 十八卷, 外經 三十七卷'[5]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서』「예문지」는 전한(前漢) 말 유흠(劉歆, B.C.53?-25)의 『칠략(七略)』의 원문을 줄여서 후한(後漢)의 반고(班固)가 편찬한 것이므로 기원전 1세기 말에 이미 『黃帝內經』이라는 명칭의 책이 『黃帝外經』과 쌍을 이루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은 분명하다.

『황제내경』은 현재까지 존재하는 중국 의학서적 중에서 마왕퇴(馬王堆)[6]에서 출토된 의서(醫書)를 제외하고는 가장 그 연대가 빠르며, 그 의학원리는 현재까지도 동양의학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이론의 근거가 된다. 『황제내경』에서 설명되고 있는 의학이론은 음양오행설을 받아들인 형이상학적 색채가 강하다. 게다가 후대 학자들에 의해 그런 면이 한층 확대되어 운기론(運氣論)과 같은 것이 성립되었다. 그 때문에 『황제내경』의 학설은 공론(空論)에 지나지 않고 실제 치료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도 생겨났다. 그러나 『황제내경』은 중국 의학과 사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헌이며 후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문헌이다.[7]

『문화와 융합』 제59호(2019)) 등에 불과하다.

5 『漢書』 卷30 「藝文志」.

6 1972-1973년에 후난성(湖南省) 창사시(長沙市) 동쪽 교외에서 발굴된 전한(前漢) 시기의 무덤 3기가 발견되었는데, 장사국(長沙國)의 대후(軑侯)와 그의 부인, 아들의 것으로 추정된다. 견직물·칠기·백화(帛畵)·백서(帛書) 등 다양한 부장품이 발견되어 한나라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7 유희 엮음, 김혜경·윤주영 역, 『동양 최고의 수학서, 구장산술』(서해문집, 1998),

『황제내경』은 의학이론 뿐만 아니라 진한(秦漢)시대의 천문학, 역법(曆法), 기상학(氣象學), 지리학, 심리학, 생물학 등 여타 과학 분야의 내용까지도 풍부하게 기록하고 있다. 현재의 『황제내경』은 각각 81편으로 구성된 『소문(素問)』과 『영추(靈樞)』의 두 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황제가 기백(岐伯) 등 6명의 신하와 문답과 토론식으로 각종 의학이론을 밝혀 나가는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황제내경』의 저자가 누구이며 어느 시대에 저술되었는지 문제는 현재도 많은 논란이 있다.[8]

『황제내경』이 다루고 있는 분야의 다양함, 포괄하고 있는 내용의 깊이 등을 고려해볼 때 『황제내경』은 어느 한 개인의 저작이 아니며 수많은 의학자들이 수 세기 동안에 걸쳐 첨삭을 한 책이다. 그 연대는 대략 기원전 4세기경부터 기원후 2세기경까지로 전국시대에서부터 전한, 후한에 걸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9]

『황제내경』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생리와 병리, 각종 질병의 진단, 치료, 예후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본 내용을 개괄하면 장상(臟象)·병기(病機)·진법(診法)·치료원칙(治療原則)·운기(運氣)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황제내경』의 주요 특징은 천인(天人)의 상호관계 구조 속에서 음양오행(陰陽五行)·장부경락(臟腑經絡)·정기신(精氣神) 등의 각종 의학모형을 만들고 그 운영체계도 함께 기술한 데 있다.[10]

장상(臟象)학설은 '장부경락(臟腑經絡)학설'이라고도 부르는데 장부경락의 생리현상과 그 활동체계를 연구했으며, 고대인의 해부학 지식과 임상치료의 실천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음양오행·천인상응(天人相應) 등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 오장(五臟)을 중심으로 한 인체 생리체계의 모형을 구성하여

212쪽.

8 홍원식 校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전통문화연구회, 1994), 解題 참고.

9 홍원식(1994), 위의 책, 解題 참고.

10 홍원식(1994), 위의 책, 解題 참고.

한의학 특유의 생리학 체계인 장상학설을 완성하였다. 장상학설의 특징은 오장의 상호연관(相互聯關) 체계에 있다. 각각의 장부는 각각의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오장 전체는 상호협조와 상호제약의 관계를 견지하고 있다.

병기(病機)학설은 발병(發病)학설·병인설(病因說)·질병전변(疾病傳變)학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병기(病機)는 질병의 발생과 변화의 내재적인 기전(機傳)을 말한다. 『황제내경』의 진법(診法)은 크게 망진(望診)·문진(聞診)·문진(問診)·절진(切診)으로, 이 4가지는 후대에 성립된 진단학(診斷學)의 연원이 된다. 『황제내경』은 치료수단으로 양생(養生, 氣功·導引 포함)·침구(鍼灸)·안마(按摩)·약물(藥物)·요례(醪醴, 藥酒) 등을 기술하고 있다. 『황제내경』에서 중요한 치료원칙은 첫째, 병이 들기 전에 병을 예방하는 것이고, 둘째, 병의 표본(標本)·선후(先後)·완급(緩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고, 셋째, 한열허실(寒熱虛實)과 같은 질병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변증(辨證)하는 것이다.

운기(運氣)학설은 '오운육기(五運六氣)학설'이라고도 하는데, 자연계와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지만 더 나아가 자연계 기후(氣候)의 정상 또는 이상 상태에 따른 인체의 생리·병리의 변화상의 추이를 유추하여 기상과 질병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오운(五運)'은 열 천간(天干)이 화(化)하여 土·金·水·木·火의 오운이 되는 것이고, '육기(六氣)'는 열두 지지(地支)가 삼음삼양(三陰三陽)과 배합되어 풍목(風木)·군화(君火, 熱)·습토(濕土)·상화(相火, 火)·조금(燥金)·한수(寒水)의 육기가 되는 것이다. 운기학설은 자연계의 기후 변화가 주기적인 규칙을 따르고 있고, 인체의 병리 변화도 이에 상응하여 변화한다고 말한다.

2.『동의보감』 체계와 내용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의서(醫書)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동의보감(東醫寶鑑)』은 허준(許浚, 1546-1615)의 주도적 편찬으로 1610년(광해군 2)에 완성되었고 1613년(광해군 5) 내의원에서 간행하였다.『동의보감』은 본문 23권이고 목록은 상하 2권으로 총 25권이며 각 권마다 독립적으로 한 권의 책을 이루고 있다. 본문은 내경편(內景篇) 4권, 외형편(外形篇) 4권, 잡병편(雜病篇) 11권, 탕액편(湯液篇) 3권, 침구편(鍼灸篇) 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의보감』에 명시해놓은 역대의방(歷代醫方)의 종류는『천원옥책(天元玉冊)』·『본초(本草)』·『영추(靈樞)』·『소문(素問)』등 한대(漢代) 이전의 의서가 10종,『상한론(傷寒論)』등 후한(後漢) 3종, 양진(兩晉) 7종, 남북조(南北朝) 2종, 수(隋) 2종, 당(唐) 8종, 금(金) 5종, 송(宋) 15종, 원(元) 10종, 명(明) 21종의 의서와 우리나라 세종(世宗)조의『의방유취(醫方類聚)』·『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과 선조(宣祖)조의『의림촬요(醫林撮要) 등 총 86종에 달한다. 또한 역대의방에서 밝히지 않은 의서까지 포함하면 한당(漢唐)에서부터 송원명(宋元明) 대에 이르는 대표적인 의서 200여 종을 모두 인용하여[11] 정연한 체계로 당시의 의학 전반을 종합 정리하였다.

『동의보감』대부분의 서술은 기존 중국 의서를 인용한 것이며, 다른 사람의 글이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전통을 따랐다.『동의보감』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황제내경』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자연과 사회, 사람 몸에 대한 관점이『황제내경』에 충실하면서도 그 후 발전된 의학이론들을 다양하게 수용하여 당시까지의

---

11 김중권,「『東醫寶鑑』의 文獻的 硏究: 引用文獻을 중심으로」,『서지학연구』제11집 (1995), 215쪽, 242쪽 참고.

모든 의학이론과 임상을 종합하였다. 이런 점에서 『동의보감』은 『황제내경』의 한국적 적용이면서 『황제내경』의 완결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12]

『동의보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람 몸을 이루는 근본을 일관되게 '정기신(精氣神)'의 구조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 몸의 근본을 '정기신'으로 보는 관점은 『동의보감』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며 이미 『황제내경』에서부터 산발적으로 언급되었다. 하지만 『황제내경』에서는 '정기신'을 함께 연관해서 보지 않고 '정'과 '기', '정'과 '신'처럼 서로 나누어 언급하고 있었다. 『황제내경』에서는 '정기신'이라는 몸의 근본에 대한 이해가 『동의보감』에 비해 아직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다. 『황제내경』에서 '정기신'이라는 개념이 싹을 틔웠다면 『동의보감』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꽃을 피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황제내경』과 달리 『동의보감』은 〈집례(集例)〉 첫머리에서 "정(精)·기(氣)·신(神)이 또 장부(藏府)와 온몸[百體]의 주인이 됩니다."[13]라고 밝히고서, 「내경편(內景篇)」 권1에서 정(精)·기(氣)·신(神)을 각각 별도의 장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동의보감』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편제(編制)되었다. '정기신'에 기초하여 몸 안의 구조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내경(內景)」,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외형(外形)」, 기존 의서에서 주로 다루었던 여러 가지 질병과 처방으로 구성된 「잡병(雜病)」, 향약을 중심으로 약재를 설명한 「탕액(湯液)」, 침과 뜸에 관한 「침구(鍼灸)」가 그것이다.

> 이 책은 먼저 몸속의 모습[內景]인 정(精)·기(氣)·신(神)·장부(藏府)로 내편(內篇)을 삼고, 다음으로 겉의 모습인 두(頭)·면(面)·수(手)·족(足)·근(筋)·맥(脈)·골

12 박석준, 『동의보감, 과학을 논하다』(바오, 2015), 58-59쪽.

13 허준 저, 윤석희·김형준 외 역, 『(對譯)東醫寶鑑』(동의보감출판사, 2010), 3쪽(『東醫寶鑑』 〈集例〉. "而精氣神, 又爲藏府百體之主.").

(骨)·육(肉)으로 외편(外篇)을 삼았습니다. 또 오운육기(五運六氣)·사상(四象)과 삼법(三法)·내상(內傷)과 외감(外感)·온갖 병의 증상들을 나열하여 잡편(雜篇)으로 삼았고, 끝으로 탕액편(湯液篇)과 침구편(鍼灸篇)을 두어 그 변화를 다하였습니다.[14]

『동의보감』은 '정기신'이라고 하는 사람 몸의 기본 구성요소를 축으로 몸의 안을 비추어 보고[內景], 밖을 갈라서[外形] 이해함으로써 몸의 다양한 병적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雜病]하였던 것이다. 이는 의학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독자적인 편제이며, 기존 의서들이 병의 원인이나 증상에 따른 처방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과 달리 '정기신' 구조에 기초해 사람 몸을 이해하였다.

『황제내경』 이후 중국의 수많은 의서들은 '정기신'에 주목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 관점은 도교(道敎)로 이어졌다.[15] 그 대표적인 저작이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황정경(黃庭經)』·『포박자(抱朴子)』 등인데 이런 저술들을 거쳐 5-6세기 남북조시대 즈음에 '정기신'이라는 개념이 비로소 확립되었다. '정기신'이 의학이 아니라 도교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은 '정기신'의 개념은 바로 사람 몸의 수련 과정과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동의보감』은 그때까지의 의서들과 의학 이론들이 너무 번잡했던 것을

---

14 허준 저, 윤석희·김형준 외 역(2010), 앞의 책, 3쪽(『東醫寶鑑』 〈集例〉. "今此書, 先以內景精氣神藏府爲內篇, 次取外境頭面手足筋脈骨肉爲外篇, 又採五運六氣, 四象三法, 內傷外感, 諸病之證, 列爲雜篇, 末著湯液鍼灸, 以盡其變.").

15 후한 말기에 주요한 내용과 골격을 형성한 『태평경(太平經)』에 따르면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구조(모습) 또한 원기(元氣)에 근원하여 '정(精)·신(神)·기(氣)'의 세 기로 이루어지는 존재이며, 이 기들은 각각 하늘[天]과 땅[地], 중화[中和]로부터 기원한다. 인간의 생명은 궁극적으로 원기로부터 생겨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정(精)과 신(神)에 의존한다. 여기에서 엄밀하지는 않지만 정은 신체, 신은 정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윤찬원, 『도교철학의 이해』(돌베개, 1998), 140-142쪽.

‘정기신’이라는 일관된 관점으로 정리했는데, 이는 도교의 전통 속에서 『황제내경』의 정신을 이어 발전시킨 것이며, 북방의 금원사대가(金元四大家)[16]의 논의를 이어 더 높은 수준의 의학 이론으로 정립한 것이다.[17] 『동의보감』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의학에 ‘정기신’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여 기존 의학 이론들이 보편성을 갖는 의학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Ⅲ.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의 정기신론

정기신(精氣神)은 중국의 전통 양생(養生)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으로 고대부터 크게 중시되어 왔다. 그래서 『주역(周易)』·『관자(管子)』·『장자(莊子)』 등과 같은 원전(原典)에서도 정신(精神)과 정기(精氣) 등의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주역』「계사전」에 “정(精)과 기(氣)가 (합하여) 만물이 되고, 혼(魂)(과 백(魄))이 떠나면 변하게 된다(죽는다). 그러므로 귀(鬼)와 신(神)의 실상을 알 수 있다.”[18]라는 말이 나온다. 즉 만물은 정(精)과 기(氣)가 서로 엉기어서 형성되고 신(神)과 혼(魂)이 흩어지면서 변화한다는 말이다.

『관자』「내업(內業)」편에 “무릇 만물의 정(精)이 합하면 생명을 낳는다. 정이란 기(氣)의 정수(精髓)이다. 기는 도(道)를 얻어 생명을 낳는다. 몸 안에

16 중국 의학에서 금(金)·원(元)시대 유명한 의학자인 유완소(劉完素)·장종정(張從正)·이고(李杲)·주진형(朱震亨)이 대표하는 4대 의학파이다.

17 고희상, 「『東醫寶鑑』의 生命觀 硏究: 精·氣·神을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 12-13쪽.

18 『周易』「繫辭上傳」 제4장. “精氣爲物, 游魂爲變. 是故知鬼神之情狀.”

신(神)이 스스로 있으니 그것을 잃으면 반드시 어지러워지고, 그것을 얻으면 반드시 다스려진다. 경건하게 마음의 잡념을 제거하면 정(精)이 장차 저절로 온다."[19]고 하여 '정기신(精氣神)'을 만물과 사람 생명 형성의 근원으로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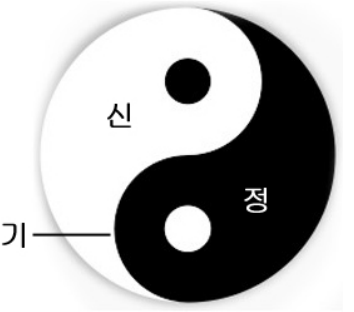

그림1-태극과 정기신

사람 생명 속에는 사람의 몸이 본래부터 구비하고 있는 세 가지 약이 있는데 정(精)·기(氣)·신(神)이 바로 그것이다. 『황제내경』에서는 정·기·신을 연이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셋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양생에서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황제내경』에서는 정·기·신을 인체 생명 활동의 근본으로 인식하여 이를 보양하는 것이 양생·장수의 비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보정(補精), 양기(養氣), 수신(守神)을 강조하였다.

태극도(太極圖)는 우주 자연의 법칙을 보여주는 한편, 사람 몸의 생명 법칙을 설명해주는 도식이다. 정이 가장 충만할 때 비로소 신이 왕성해지기 시작하고, 신이 가장 왕성할 때 다시금 정이 충만해지기 시작한다. 기는 정과 신 사이에서 교량 역할, 음과 양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한다.[20]

> 음기(陰氣)가 화평하고 양기(陽氣)가 숨겨지면 정(精)과 신(神)이 바로 잡아지는 반면, 음과 양이 분리되어 갈라지면 정(精)과 기(氣)도 그에 따라 끊어진다.[21]

---

19 김필수·고대혁 외 역, 『管子』(소나무, 2010), 「內業」, 604-609쪽. "凡物之精, 比則爲生. 〔…〕 精也者, 氣之精者也. 氣, 道乃生. 〔…〕 有神自在身, 〔…〕 失之必亂, 得之必治. 敬除其舍, 精將自來."

20 장치청 저, 오수현 역, 『황제내경, 인간의 몸을 읽다』(판미동, 2017), 49쪽.

21 『素問』 「生氣通天論」. "陰平陽秘, 精神乃治; 陰陽離決, 精氣乃絶."

정(精)은 사람 생명의 기원이고, 기(氣)는 생명을 유지하는 원동력이며, 신(神)은 그 생명력이 드러나는 상태이다. 그래서 고대 양생가는 인체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정·기·신의 삼보(三寶)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를 하늘의 일(日)·월(月)·성(星)에 비유하였다.

정기신 논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천인상감(天人相感) 관계에 기반을 둔다. 천(天)으로 대표되는 천지(天地)자연과 인간[人]의 관계는 서로 단절되고 고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관계로서,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오고 하나의 기(氣)로부터 화생(化生)하여 상호연계성을 갖는 유기적(有機的) 관계라는 의미이다.

이런 천지자연과 인간의 상호 유기적 관점을 체계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황제내경(黃帝內經)』이다.

> 황제가 말했다. "내가 듣자 하니 옛날에 진인(眞人)이 있었는데 천지(天地)를 손에 넣고 음양(陰陽)을 파악하며 정기(精氣)를 호흡하고 홀로 서서[고요히] 신(神)을 지켰더니 몸이 한결같아[늙지 않아] 천지가 다하도록 오래 살 수 있어서 죽는 때가 없었으니 이는 그 도(道)가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22]

『황제내경』은 사람 생명 속의 정(精)·기(氣)·신(神) 삼자는 서로 긴밀하게 생조(生助)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정이 충만하면 기가 넘쳐나고, 기가 넘쳐나면 신이 왕성해지며, 정이 부족하면 기가 허해지고, 기가 허해지면 신도 쇠약해진다고 하는 것이다.[23]

『동의보감(東醫寶鑑)』「내경편(內景篇)」은 정기신(精氣神)을 근간으로 하

---

22 『素問』「上古天眞論」. "黃帝曰: 余聞上古有眞人者, 提挈天地, 把握陰陽, 呼吸精氣, 獨立守神, 肌肉若一, 故能壽敝天地, 无有終時, 此其道生."

23 장치청 저, 오수현 역(2017), 앞의 책, 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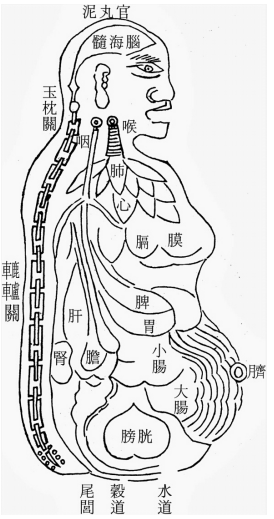

그림2-신형장부도

여 오장육부(五臟六腑) 등 사람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집례(集例)〉의 글머리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신(臣)이 삼가 살피건대, 사람의 몸속에는 오장육부(五臟六腑)가 있고 겉에는 근골(筋骨)·기육(肌肉)·혈맥(血脈)·피부(皮膚)가 있어 형태를 갖추며, 정(精)·기(氣)·신(神)이 또 장부와 온몸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도가(道家)의 삼요(三要)와 석씨(釋氏)의 사대(四大)가 모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24]

정기신은 서양 의학으로 비유하면 세포(cell)에 해당될 정도로 사람 생명과 몸에서 근본적인 것이다. 『동의보감』에 수록된 신형장부도(身形藏府圖)는 겉에서 보고 알아낸 몸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사람 몸의 해부학적 구조가 아니라 정기신이라는 기능이 작동하는 공간의 구조를 그린 것이다.[25] 『동의보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정기신의 관점을 갖고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다.

『동의보감』은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수많은 인용을 통해 '정기신'이라는 자신의 관점과 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동의보감』은 그저 '어떤 병증에 어떤 처방'이라는 식으로 처리한 기존 의서의 논의나 처방에 대하여 이론과 임상의 관점에서 새로운

---

24 허준 저, 윤석희·김형준 외 역(2010), 앞의 책, 3쪽(『東醫寶鑑』〈集例〉. "臣謹按人身內有五藏六府, 外有筋骨肌肉血脈皮膚, 以成其形, 而精氣神, 又爲藏府百體之主. 故道家之三要, 釋氏之四大, 皆謂此也.").

25 박석준(2015), 앞의 책, 106쪽.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개별적인 의론이나 처방이 『동의보감』에 인용됨으로써 비로소 전체와 연관을 갖는 유기적인 부분으로 변하는 것이다.[26]

정기신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결정하는 관계가 아니다. 정에서 기가 나오지만 기는 정을 다스리는 것이 된다. 기를 통해 신이 나오지만 신은 기를 조절하는 것이 된다. 정기신은 서로가 서로의 근거가 되면서 서로에게 동시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이러한 정기신 구조는 『황제내경』의 주된 개념이고 『동의보감』의 핵심이다.

1. 정론(精論)

정(精)은 사람 생명의 근원이고 사람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다. 『素問』「金匱眞言論」에서는 "정이란 사람 몸의 근본이다(夫精者, 身之本也)."[27]고 한다. 그래서 『靈樞』「本神」에서 "생명이 올 때 그 자체를 일러 정이라 한다."[28]고 하였다. 정은 사람 생명의 시원(始原)이고 사람 몸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므로 부모[천지]에게서 받은 정을 잘 간직하여야 타고난 자기 수명을 보존하여 무병장수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동의보감』도 정은 몸의 근본(精爲身本)[29]이라 하였고, 『황제내경』·『천금방(千金方)』·『자생경(資生經)』 등을 인용하여 욕망을 줄여서 정을 모으며(節慾儲精)[30], 『의학입문(醫學入門)』을 인용해서 "고요히 앉아[靜坐] 있으면

---

26 고희상(2002), 앞의 논문, 13쪽.

27 『素問』「金匱眞言論」. "夫精者, 身之本也."

28 『靈樞』「本神」. "故生之來謂之精."

29 허준 저, 윤석희·김형준 외 역(2010), 앞의 책, 42쪽(『東醫寶鑑』「內景篇」 卷1 〈精〉).

30 허준 저, 윤석희·김형준 외 역(2010), 위의 책, 45쪽(『東醫寶鑑』「內景篇」 卷1 〈精〉). "절제하여야 하는데 절제할 줄 모르고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면 이로 인하여 생명을 잃게 되니, 이는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는 격이다(宜節不知節, 宜絶不能絶, 坐此而喪生, 蓋自取之地)."

신수(腎水)가 저절로 올라가고, 혼자 살면 색욕이 저절로 끊어진다."[31]고 하였다.

『素問』「上古天眞論」에서 "신(腎)은 수(水)를 주관하고 오장육부의 정(精)을 받아서 저장한다."[32], 『六節藏象論』에서 "신장(腎臟)은 주로 감추어서[主蟄] 드러나지 않게 저장[封藏]하는 근본으로 정(精)이 머무는 곳이다."[33]고 하였다. 『동의보감』도 『황제내경』을 인용하여 오장에 모두 정이 있고(五臟皆有精), 신(腎)은 (장부의) 정을 모두 모아 관장하는 곳(腎爲都會關司之所)이라고[34] 하였다.

정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부모로부터 받아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정이다. 그래서 선천지정(先天之精)이라고 한다. 부모의 신(神)이 하나로 합쳐져 사람이 태어나므로 사람이 형성되는데 이 선천지정이 없으면 안 된다. 선천지정은 타고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얻는 정이 있다. 후천지정(後天之精)은 비위운화(脾胃運化)로 생성된 수곡정미(水穀精微, 물과 곡식)이다. 즉 후천지정은 음식(飮食)을 통해서 얻는다. 음식물 중 가장 정밀하며 미세한 정수(精髓)는 오곡이므로 오곡으로 정을 보완한다(補精以味).[35]

『영추』에 "두 사람[부모]의 신(神)이 서로 가지고 합하여 형(形)을 만든다. 항상 몸이 생기기 전에 먼저 생겨나는 것을 정(精)이라고 한다."[36]고 하였다.

---

31 허준 저, 윤석희·김형준 외 역(2010), 위의 책, 45쪽(『東醫寶鑑』「內景篇」 卷1 〈精〉). "靜坐則腎水自升, 獨居則房色自絶."

32 『素問』「上古天眞論」. "腎者主水, 受五藏六府之精而藏之."

33 『素問』「六節藏象論」. "腎者, 主蟄封藏之本, 精之處也."

34 허준 저, 윤석희·김형준 외 역(2010), 앞의 책, 43쪽(『東醫寶鑑』「內景篇」 卷1 〈精〉).

35 米(쌀 미)와 靑(푸를 청)의 결합으로 精자가 되고, 生(날 생)과 丹(붉을 단)의 결합으로 靑이 되고, 丹은 井(우물 정)에 단사(·)가 들어가 있는 것과 유관하다.

36 『靈樞』「決氣」. "兩神相搏,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

정은 몸의 근본이다. […] 사람에게 정은 가장 귀한데 그 양이 매우 적어, […] 매일 먹는 음식 중의 정수가 정이 되기 때문에 정이라는 글자는 미(米)와 청(靑)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 『내경』에 "정은 곡식에서 생긴다."[37]고 하였다. 또 "정이 부족하면 음식으로 보한다."[38]고 하였다. […] 이 세상의 음식 중에 오직 오곡만이 참다운 맛을 가졌기 때문에 곡식을 담담하게 먹는 것이 정을 가장 잘 보양하는 방법이다.[39]

『靈樞』「經脈」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먼저 정이 생기고, 정이 생기면 뇌수(腦髓)가 생긴다(人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髓生)."[40]고 한다. 그림2의 신형장부도로 설명하면 '수(髓)'는 선천적으로 받은 신(腎)의 정기(精氣)와 후천적으로 먹은 음식인 수곡(水穀)의 가장 정미(精微)한 물질에 의하여 생긴다. 뇌(腦)에 모인 수(髓)는 등 쪽으로 도르래에 해당하는 척추를 따라 내려간다. 정(精)에서 만들어진 수(髓)가 이 길을 따라 온몸에 퍼진다. 이를 바탕으로 기(氣)가 돌게 되고 여기에서 신(神)이 나온다.

정은 사람을 만드는 출발점이자 가장 근본적인 물질로서 남자와 여자의 신(神)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생식지정(生殖之精)은 선천적인 것이며, 사람이 먹는 음식에서 만들어지는 수곡지정(水穀之精)은 영양분의 총칭으로 후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긴 정은 뼛속을 스며들어 골수(骨髓)와 뇌(腦)를 보충해준다.

정과 기는 서로 기르므로 기가 모이면 정이 가득 차고 정이 가득 차면

---

37 『素問』「評熱病論」. "皆生於穀, 穀生於精."

38 『素問』「陰陽應象大論」. "精不足者, 補之以味."

39 허준 저, 윤석희·김형준 외 역(2010), 앞의 책, 42쪽, 46쪽(『東醫寶鑑』「內景篇」 卷1 〈精〉, "靈樞曰, 兩神相薄,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 精者, 身之本也. […] 人之精最貴而甚少, […] 日啖飮食之華美者爲精, 故從米從靑. […] 內經曰, 精生於穀. 又曰, 精不足者, 補之以味. […] 世間之物, 惟五穀得味之正, 但能淡食穀味, 最能養精.").

40 『靈樞』「經脈」. "人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髓生."

기가 왕성해진다.[41] 그러므로 정은 기를 낳고 기는 신을 낳는다. 우리 몸을 키우고 지켜주니 우리 몸에서 이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양생하는 사람은 먼저 정을 아껴야 한다. 정이 가득하면 기가 튼튼해지고, 기가 튼튼하면 신이 왕성해진다. 신이 왕성하면 몸이 건강하게 되고, 몸이 건강하면 병이 적어진다.[42]

정이라는 물질에서 기가 나뉘고 그런 기가 두루 흘러 드러나게 되는 것이 신이다. 정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다. 비유하자면 정은 부모와 같은 것이며 기는 그 자식들이며 신은 그렇게 하나의 가족을 이루며 나타내는 가족의 분위기이다. 이 셋은 일방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2. 기론(氣論)

기(氣)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하게 쓰이는 말이지만 매우 복잡한 개념이다. 기는 정기신 중 가장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기는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 그 대상에 어떤 효과를 주는가'하는, 그 상호관계에서 드러나는[작용하는] 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는 상호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효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기는 물질적인 내용을 포함하지만 물질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물질의 '작용', 그리고 그 물질이 몸에서 나타내는 '효과'라는 측면을 말한다.

---

41 허준 저, 윤석희·김형준 외 역(2010), 앞의 책, 42쪽(『東醫寶鑑』「內景篇」卷1 〈精〉. "精與氣相養, 氣聚則精盈, 精盈則氣盛.").

42 허준 저, 윤석희·김형준 외 역(2010), 위의 책, 43쪽(『東醫寶鑑』「內景篇」卷1 〈精〉. "精能生氣, 氣能生神. 榮衛一身, 莫大於此. 養生之士, 先寶其精. 精滿則氣壯, 氣壯則神旺. 神旺則身健, 身健而少病.").

즉 기는 '인체 내에서 운행하는 미세한 물질'과 '인체 각 장부와 기관의 활동 능력[기능]'을 의미한다.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에서 언급한 기는 물질적 특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기는 정이 역할에 따라 나뉘어 작용함으로써 나타내는 기능을 말한다. 정이 눈으로 가서 작용하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가면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가면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다리로 가면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이 모두 기의 작용이다. 기는 하나의 물질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개별적인 기능이 아니라 다른 물질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나타나는 기능이다.

『황제내경』의 동양의학에서 기(氣)는 원기(元氣: 본디 타고난 선천적인 기, 만물의 근원이 되는 기), 대기(大氣: 호흡하는 자연의 공기), 곡기(穀氣: 섭취하는 곡식의 기)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기가 혼연일체가 되어 정기(正氣)·진기(眞氣)를 생성한다.

원기는 천지(天地)·음양의 기, 사시(四時)·오행의 기를 포괄하는 우주 자연의 근본 환경 요인을 말하며[43]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생리(生理)는 폐(肺)를 통해서 호흡의 근본이 되는 대기와 비위(脾胃)에서 음식의 운화(運化)로 생긴 수곡(水穀)의 기가 결합하여 행해진다. 그러므로 우주자연의 일부인 인간은 자연의 대기와 곡기로 몸을 충실히 해야만 건강한 심신을 유지할 수 있다.[44]

인체 안의 모든 기는 모두 진기(眞氣·正氣)에서 비롯된다. 진기가 인체의

---

43 『素問』「陰陽應象大論」. "그러므로 맑은 양의 기운은 하늘이 되고, 탁한 음의 기운은 땅이 되며, 땅의 기운은 위로 올라 구름이 되고, 하늘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와 비가 되니, 비는 땅의 기운에서 나오고, 구름은 하늘의 기운에서 나온다(故淸陽爲天, 濁陰爲地, 地氣上爲雲, 天氣下爲雨, 雨出地氣, 雲出天氣.)."

44 흘러가는 구름과 바람·공기를 의미하는 气(기운 기)와 米(쌀 미)의 결합으로 氣자가 되는 것과 유관하다.

장부·경락 등의 조직을 승강출입(升降出入)하므로 인체의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며, 승강출입의 운동이 멈추면 사람의 생명활동도 정지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45]

『소문』에서 "폐(肺)는 기(氣)의 근본으로 넋[魄]이 머무는 곳이다."[46], "모든 기는 폐에 모두 속한다."[47]고 했으며, 『동의보감』도 『황제내경』의 말을 인용하여 "폐는 기를 주관하고(肺主氣) 음양과 청탁의 기가 나뉘어 퍼진다(分布陰陽淸濁之氣)."고 하였다.[48] 그러므로 기는 호흡의 뿌리이다(氣爲呼吸之根).[49]

사람이 처음 생명을 받을 때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를 따라 호흡을 한다. 세상에 태어난 후에 탯줄을 끊으면 조그만 진령(眞靈)의 기가 배꼽 아래에 모인다. 사람에게는 기가 가장 중요하므로 호흡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날숨[呼氣]은 하늘의 뿌리와 닿아 있고, 들숨[吸氣]은 땅의 뿌리와 닿아 있다. 그리고 『역(易)』에서 "한 번 닫히고 한 번 열리는 것을 변(變)이라 하고, 끝없이 오고 가는 것을 통(通)이라 한다."[50]고 하였다.[51]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은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이 서로 사귀면서 건곤(乾坤)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현상이다. 숨을 내쉴 때 기가 나가는 것은 천지양(天之陽)의 여는 작용이고 숨을 들이쉴 때 기가 들어오는 것은 지지음(地之陰)의 닫는 작용이다. 그러므로 기는 사람 몸을 끊임없이 순환하여 생명을 유지하

---

45 김완희, 『한의학원론』(성보사, 2003), 121쪽.

46 『素問』「六節藏象論」. "肺者, 氣之本, 魄之處也."

47 『素問』「五藏生成」. "諸氣者, 皆屬於肺."

48 허준 저, 윤석희·김형준 외 역(2010), 앞의 책, 64쪽(『東醫寶鑑』「內景篇」 卷1 〈氣〉).

49 허준 저, 윤석희·김형준 외 역(2010), 위의 책, 64쪽(『東醫寶鑑』「內景篇」 卷1 〈氣〉).

50 『周易』『繫辭上傳』 제11장.

51 허준 저, 윤석희·김형준 외 역(2010), 앞의 책, 64쪽(『東醫寶鑑』「內景篇」 卷1 〈氣〉. "正理曰, 人受生之初, 在胞胎之內, 隨母呼吸. 及乎生下, 剪去臍帶, 則一點眞靈之氣, 聚于臍下. 凡人唯氣最先, 莫先于呼吸. 〔…〕 氣之呼接于天根, 氣之吸接于地根, 〔…〕 易曰, 一闔一闢謂之變, 往來不窮謂之通.").

는 원동력이 되며, 양생과 수련은 '사람의 호흡은 천지의 호흡을 본받는다'는 인식에 바탕을 한다.

『영추』에서 "진기(眞氣)는 하늘로부터 받으며, 곡기(穀氣)와 함께 몸을 충실하게 한다."[52], "사람은 곡식에서 기를 받는다. 곡식이 위(胃)에 들어오면 곡기가 폐(肺)에 전해지고 오장육부가 모두 그 기를 받는다. 그 중에서 맑은 것은 영(營)이 되고, 탁한 것은 위(衛)가 된다. 영은 맥 안을 흐르고 위는 맥 바깥을 흐른다. 〔…〕 이렇게 음양은 서로 관통하여 고리처럼 끊임없이 돈다."[53]고 하였다. 『동의보감』도 기는 곡식에서 나온다(氣生於穀)고 하였다.[54]

모든 병은 기에서 생긴다.[55] 그래서 "정기(正氣)가 체내에 잘 보존되어 있으면 사기(邪氣)가 침범하지 못하며 그 독기(毒氣)를 피할 수 있다"[56]고 한다. 정기신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정과 기는 인체 생명활동의 물질적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인 생명의 근원을 정기(精氣)라고 지칭한다. 따라서 정을 바탕으로 기의 흐름을 원활히 유지해야만 온갖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

52 『靈樞』「刺節眞邪」. "眞氣者, 所受於天, 與穀氣幷而充身也."

53 『靈樞』「營衛生會」. "人受氣於穀, 穀入於胃, 以傳與肺, 五臟六腑, 皆以受氣. 其淸者爲營, 濁者爲衛. 營在脈中, 衛在脈外, 〔…〕 陰陽相貫, 如環無端."

54 허준 저, 윤석희·김형준 외 역(2010), 앞의 책, 59쪽(『東醫寶鑑』「內景篇」 卷1 〈氣〉).

55 『素問』「擧痛論」. "나(황제)는 모든 병이 기(氣)에서 생긴다고 알고 있다. 성내면 기가 올라가고 기뻐하면 기가 이완되고 슬퍼하면 기가 소모되고 두려우면 기가 내려가고 추우면 기가 수축되고 더우면 기가 누설되고 놀라면 기가 어지러워지고 과로하면 기가 소모되고 생각이 많으면 기가 뭉치게 된다(余知百病生於氣也,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炅則氣泄, 驚則氣亂, 勞則氣耗, 思則氣結.)."; 『東醫寶鑑』「內景篇」 卷1 〈氣〉. "기에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氣爲諸病)."", "사람이 공기 속에서 사는 것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 물이 탁하며 고기가 여위고 공기가 탁하면 사람이 병든다. 사기(邪氣)는 사람을 가장 많이 상하게 한다(人生氣中, 如魚在水, 水濁則魚瘦, 氣昏則人病. 邪氣之傷人, 最爲深重)."

56 『靈樞』「刺法論」. "正氣存內, 邪不可干, 避其毒氣."

3. 신론(神論)

신(神)은 기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생명 현상, 생명력이 발현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람 몸[身形]의 근본이고 생명이 있게 한 '정'을 기초로 해서 각 부분으로 나뉘어 작용하는 '기', 그런 '기'의 작용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어떤 상태, 즉 생명력이 드러난 상태가 '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정신 상태일 수도 있고 몸의 상태일 수도 있다.

사람 몸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 물질인 정(精)이 오장육부와 같이 다양한 역할로 나뉘어 작용하는 것이 기(氣)이며, 기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생명 현상이 신(神)이다. 신은 기의 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생명력의 표현이다. 정신 작용은 신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라든지 움직임이나 말을 통해 드러나서 알게 되는 몸의 상태도 모두 신에 포함된다.

정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각각의 역할에 맞는 일을 한다. 그것이 바로 기이다. 기가 사람 몸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면 신은 그런 기능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생명현상이다. 정을 바탕으로 기가 흐르고 그럼으로써 신이 드러난다. 신은 칠정(七情)을 비롯한 정신 작용과 사람 몸의 모양[形], 안색 등 몸의 색(色), 몸짓[態]을 통해 드러나고 표현된다.

심장(心臟)은 신(神)이 머무는 곳이며 신명(神明, 정신의식과 심리작용)이 나오는 곳이다. 그래서 『소문』「영란비전론(靈蘭秘典論)」과 「본병론(本病論)」은 "심장(心臟)은 군주의 기관으로 신명(神明)이 나오는 곳이다."[57]고 하였고, 「육절장상론(六節藏象論)」은 "심(心)은 생명의 근본으로 신(神)이 머무는 곳

57 『素問』「靈蘭秘典論」. "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 『素問』「本病論」. "心爲君主之官, 神明出焉."

이다."[58]고 하였다. 『소문』「선명오기(宣明五氣)」는 "심장(心臟)은 신(神)을 간직하고, 폐장(肺臟)은 백(魄)을 간직하고, 간장(肝臟)은 혼(魂)을 간직하고, 비장(脾臟)은 의(意)를 간직하고, 신장(腎臟)은 지(志)를 간직하고 있으니, 이를 일러 오장소장(五藏所藏)이라 한다."[59]고 하였다.

『동의보감』도 "심(心)은 신(神)을 간직하여 우리 몸의 군주가 되어 칠정(七情)을 거느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칠정이란 기쁨[喜], 성냄[怒], 걱정[憂], 생각[思], 슬픔[悲], 놀람[驚], 두려움[恐]이다. 또한 혼(魂,)·신(神)·의(意)·백(魄)·지(志)의 주인은 신(神)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신(神)이라 부르기도 한다."[60]고 하였다. 또한 비장은 의(意)와 지(智)를 간직하고, 신장은 정(精)과 지(志)를 간직하므로 이것(神魄魂意智精志)을 칠신(七神)이라 한다.[61]

그리고 『동의보감』은 『영추』「본신(本神)」을 인용하여 "심(心)이 두려워하거나 생각이 많으면 신(神)을 상하게 된다. 신이 상하면 두려워서 마음을 잃고 얼이 빠진다."[62]고 하였다. 『영추』「사객(邪客)」도 "심장은 오장육부의 큰 주인이며 정신이 머무는 곳이다. 그 (심)장이 견고하면 삿된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용납하면 심장이 상하고, 심장이 상하면 신(神)이 떠나고 신(神)이 떠나면 죽는다."[63]고 하였다.

『주역』은 "음양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신(神)이라 한다(陰陽不測之謂神)."[64]

---

58 『素問』「六節藏象論」. "心者, 生之本, 神之處也."

59 『素問』「宣明五氣」.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志, 是謂五藏所藏."

60 허준 저, 윤석희·김형준 외 역(2010), 앞의 책, 89쪽(『東醫寶鑑』「內景篇」卷1 〈神〉. "心藏神, 爲一身君主, 統攝七情, 酬酢萬機. 七情者, 喜怒憂思悲驚恐也. 又魂神意魄志, 以爲神主, 故亦皆名神也.").

61 허준 저, 윤석희·김형준 외 역(2010), 위의 책, 87쪽(『東醫寶鑑』「內景篇」卷1 〈神〉. "又曰, 脾藏意與智, 腎藏精與志, 是爲七神.").

62 『靈樞』「本神」. "心怵惕思慮則傷神, 神傷則恐懼自失."

63 『靈樞』「邪客」. "心者, 五藏六府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 其藏堅固, 邪弗能容也, 容之則心傷, 心傷則神去, 神去則死矣."

64 『周易』「繫辭上傳」 제5장.

고 하였다. 신(神)은 신(神)이라 귀로 들을 수 없으며, 눈이 밝고 마음이 열려 있고 뜻이 세워져 있으면 지혜롭게 홀로 깨달을 수 있다. 입으로 말할 수 없고, 마땅하지만 혼미한 듯같이 보아도 홀로 보며, 마치 바람이 구름을 걷어낸 듯 환하게 홀로 밝으니 그러므로 신(神)이라 한다.[65] 즉 헤아릴 수 없지만 지혜가 계발되면 깨달음에 이르는데 그 작용이 바로 신(神)이다.

> 그러므로 심(心)이 고요하면 신명(神明)과 통하여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알 수 있다. 문 밖을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알고 창밖을 보지 않아도 하늘의 도(道)를 아는 것과 같다. 심(心)은 물과 같아서 오래 두면 가라앉아 밑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영명(靈明)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심을 고요히 하면 원기가 든든해져 온갖 병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다.[66]

또한 『동의보감』에서 오장은 [인지(認知)과정인] 칠신(七神: 神魄魂意智精志)을 간직하는데(五藏藏七神) 오장의 기가 끊어지면 신이 밖으로 드러난다(藏氣絶則神見於外). 그리고 신은 [정서(情緖)현상인] 칠정(七情: 喜怒憂思悲驚恐)을 거느리는데 칠정이 상하면 병이 든다(神統七情傷則爲病)고 하였다.[67]

『영추』「평인절곡(平人絶穀)」은 "그러므로 기(氣)가 오르내릴 수 있어야 오장이 안정하고 혈맥이 부드럽게 통하여 정신(精神)이 비로소 머문다. 그러므로 신(神)이란 물과 곡식의 정기(精氣)이다."[68]고 하였으며, 『동의보감』

---

65 『素問』「八正神明論」. "神乎神, 耳不聞, 目明心開, 而志先, 慧然獨悟. 口弗能言, 俱視獨見, 適若昏, 昭然獨明, 若風吹雲, 故曰神."

66 허준 저, 윤석희·김형준 외 역(2010), 앞의 책, 86쪽(『東醫寶鑑』「內景篇」卷1 〈神〉. "故曰, 心靜可以通乎神明, 事未至而先知. 是不出戶知天下, 不窺牖見天道也. 蓋心如水之不撓, 久而澄淸, 洞見其底, 是謂靈明. 宜乎靜可以固元氣, 則萬病不生, 故能長久.").

67 허준 저, 윤석희·김형준 외 역(2010), 위의 책, 87-89쪽(『東醫寶鑑』「內景篇」 卷1 〈神〉).

68 『靈樞』「平人絶穀」. "故氣得上下, 五藏安定, 血脈和利, 精神乃居. 故神者, 水穀之精氣也."

도 『소문』「육절장상론(六節藏象論)」을 인용하여 "오미(五味)에서 신(神)이 생긴다(五味生神)."고 하였다.[69]

> 오미(五味)는 입으로 들어가 위장(胃腸)에 저장되는데 오미가 저장되는 바가 있어서 오장의 기를 길러준다. 오장의 기가 조화롭게 생겨나면 진액(津液)이 만들어지고 신(神)이 저절로 생겨난다.[70]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정은 사람 생명의 기원이고, 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원동력이며, 신은 생명이 드러나는 발현이다. 그러므로 발생순서로 말하면 정에서 기가 나오고 기에서 신이 나오는 것으로 정—기—신의 순서로 생성된다. 하지만 정기신의 발생과정은 동시적이며 상응적인 것이다.

『동의보감』「정문(精門)」에서 "정은 몸의 근본이다(精爲身本).", 「기문(氣門)」에서 "기는 정과 신의 뿌리이다(氣爲精神之根蒂).", 「신문(神門)」에서 "신은 사람 몸의 주인이다(神爲一身之主)."고 하였다. 이는 정기신은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시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하는 관계임을 의미한다. 즉 정기신 서로는 서로에게 주인이면서 신하가 되고,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식이 되는 유기적으로 상응하는 관계이다.

---

69 허준 저, 윤석희·김형준 외 역(2010), 앞의 책, 85쪽(『東醫寶鑑』「內景篇」卷1 〈神〉).

70 『素問』「六節藏象論」. "五味入口, 藏於腸胃, 味有所藏, 以養五氣, 氣和而生, 津液相成, 神乃自生."

Ⅳ. 정기신론의 명리학적 적용

명리학 원전(原典)들에서 정(精)과 기(氣), 정(精)과 신(神), 신(神)과 기(氣) 등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정기신(精氣神)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 남송(南宋) 말 1253년에 서대승이 저술한 『자평삼명통변연원(子平三命通變淵源)』에 후대 학자들의 문집(文集)과 당시의 구결(口訣)을 더하여 1634년 명(明)의 당금지(唐錦池)가 편찬한 『연해자평(淵海子平)』에서 '성정(性情)', '정기(精氣)', '혈기(血氣)', '정신(精神)', '정신기혈(精神氣血)' 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성정(性情)이란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이 발하는 바이고,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 펴지는 바이다. 아버지의 정기(精氣)와 어머니의 혈기(血氣)로써 형체를 이루는 것은 모두 金木水火土 오행의 관계이다.[71]
>
> 火는 염상(炎上)이라 하고 맛은 쓰고 예(禮)를 주관한다. 〔…〕 정신(精神)이 번쩍하고 빛나며, 말을 급하게 하며, 생각이 빠르므로 마음이 초조하다.[72]
>
> 질병이란 정(精)·신(神)·기(氣)·혈(血)이 주관하는 바로서 각기 감상(感傷)하는 것이 있다. 안으로는 장부(臟腑)를 말하고 밖으로는 지체(肢體)를 말한다. 팔자간지 오행이 생극(生剋)하는 뜻에서 무겁게 손상되는 것을 취하여 판단한다. 오행의 간지가 태왕(太旺)하거나 불급(不及)하면 모두 병이 된다.[73]
>
> 길성(吉星)과 복성(福星)이 녹마(祿馬)에 생왕하면 정신(精神)이 온전히 필요

---

71 徐升 편, 『淵海子平評註』(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6), 〈論性情〉, 163-164쪽. "性情者, 乃喜怒哀樂愛惡欲之所發, 仁義禮智信之所布. 父精母血而成形, 皆金木水火土之關係也."

72 徐升 편(1996), 위의 책, 〈論性情〉, 164쪽. "火曰炎上, 味苦主禮. 〔…〕 精神閃爍, 言語辭急, 意速心焦."

73 徐升 편(1996), 위의 책, 〈論疾病〉, 165쪽, "夫疾病者, 乃精神氣血之所主, 各有感傷. 內曰臟腑, 外曰肢體. 八字干支, 五行生剋之義, 取傷重者而斷之. 五行干支太旺不及俱病."

하다. 〔…〕 사주(四柱)가 다투고 어지러우면 인의(仁義)롭지 못하고, 오행(五行)이 상생하면 충효(忠孝)롭게 된다.[74]

그 저술시기와 저술자가 명확하지 않지만 조선조 1430년(세종 12)부터 조선말까지 약 48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음양과 명과학(命課學) 전공자들의 주요 본업서이자 명과학의 필수 시험과목으로 활용되었던 『원천강오성삼명지남(袁天綱五星三命指南)』[75]에서는 "무릇 水火로 되는 만물은 사람에게 정신(精神)이 되는 것이다. 그런즉 존재함에 따라 모두 온전하며 존재함에 따라 모두 있다."[76]고 하였다.

명대(明代)에 유기(劉基, 1311-1375)[77]가 저술했다는 명리서 『적천수(滴天髓)』에 1840년대 후반 임철초(任鐵樵)가 자신의 새로운 주석과 513개의 실증 사례를 보태어서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를 지었다. 이 책에서는 정신(精神)과 정기신(精氣神)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논하고 있다.

〈原文〉 사람에게는 정(精)과 신(神)이 있으니 한쪽으로만 구해서는 안 되며, 덜어내고[神·食傷] 보태어서[精·印星] 그 중화를 이루는 데 요점이 있다.[78]

---

74 徐升 편(1996), 위의 책, 〈愛憎賦〉, 223쪽, "吉福生旺祿馬, 全要精神. 〔…〕 四柱鬪亂兮, 不仁不義. 五行相生兮, 爲孝爲忠."

75 7세기 초중반 당대(唐代)에 술수가로 활동했던 원천강(袁天綱)의 이름에 가탁(假託)해서 펴낸, 명리학에 조예가 있는 어느 술수가의 저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76 『袁天綱五星三命指南』 〈發端類〉·〈水火不嫌死絶論〉. "夫水火之爲物, 在人爲精神者是也. 然隨在皆全, 隨在皆有."

77 유기(劉基): 원말 명초의 浙江省 靑田사람이며 자는 伯溫이고, 시호는 文成이다. 명나라의 개국공신으로 經史에 능통했고 아울러 術數에도 정통했다고 한다. 훗날 明太祖가 된 朱元璋이 그의 명성을 듣고 예를 갖춰 초빙하자 <時務十八策>을 개진해서 천하를 차지하는 계책을 올림으로써 주원장을 도와 명나라를 세우는 데 공훈을 세웠다. 명 태조 원년에 御史中丞兼太史令이 되었고 1370년 誠意伯에 봉해졌다가 이듬해 사직하였다.

78 劉伯溫 저, 任鐵樵 증주, 袁樹珊 찬집, 『滴天髓闡微』(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7),

〈原注〉 정기(精氣)와 신기(神氣)는 모두 근원이 되는 기[元氣]인데, 오행은 대체로 金水가 정기(精氣)이고, 木火는 신기(神氣)이며, 土는 그것들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신(神)이 넉넉하면 그 정(精)이 나타나지 않아도 정(精)이 저절로 넉넉한 경우가 있고, 정(精)이 넉넉하면 그 신(神)이 나타나지 않아도 신(神)이 저절로 넉넉한 경우가 있다. 〔…〕 정(精)이 정(精)을 돕는데도 정(精)이 오히려 누설되어 기(氣)가 없는 경우가 있고, 신(神)이 신(神)을 돕는데도 신(神)이 오히려 쓰러져서 기(氣)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精)과 신(神) 둘은 모두 기(氣)로 말미암아서 주관되는 것이다. 무릇 (精과 神) 이 모두는 한쪽으로만 구해서는 안 되고, 그 나아감과 물러섬[進退]을 덜어내거나 보태는 것이 다함께 중요하므로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79]

〈任注〉 정(精)은 나를 생하는 것(印星)이고, 신(神)은 나를 극하는 것(官星)이고, 기(氣)는 본래의 기(氣)가 이어져서 넉넉한 것이다. (精과 神) 둘 중에서 정(精)을 위주로 하니, 정(精)이 넉넉하면 기(氣)가 왕성하고, 기(氣)가 왕성하면 신(神)이 왕성하다.[80]

『적천수천미』가 명리서들 중에서 정신(精神), 정기(精氣), 신기(神氣), 정기신(精氣神) 등을 가장 자세히 말하고 있지만 '정기신'의 관계가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설정되지는 않았으며 여전히 부정합(不整合)한 면이 있다. 하지만 그 맥락의 근저에 존재하는 의미를 통괄(統括)해보면 밑줄 친 인용문의 내용들과 같다.

그 요지를 정리하면 "정(精)과 신(神) 모두 근원이 되는 것이며 기(氣)로

〈精神〉, 126쪽. "人有精神, 不可以一偏求也, 要在損之益之得其中."

79 劉伯溫 저, 任鐵樵 증주, 袁樹珊 찬집(1997), 위의 책, 〈精神〉, 126-127쪽. "精氣神氣皆元氣也, 五行大率以金水爲精氣, 木火爲神氣, 而土所以實之者也. 有神足不見其精而精自足者, 有精足不見其神而神自足者."

80 劉伯溫 저, 任鐵樵 증주, 袁樹珊 찬집(1997), 위의 책, 〈精神〉, 127쪽. "精者, 生我之神也, 神者, 剋我之物也, 氣者, 本氣貫足也. 二者以精爲主, 精足則氣旺, 氣旺則神旺."

말미암아 주관되는데, 기를 보태주는[생(生)하는] 정과 기를 덜어주는[설(泄)하는] 신이 모두 이어져 넉넉하고 왕성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화(中和)를 이루면 바람직하여 그 명(命)은 길하고 좋다."는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주 주인공인 일간(日干·日主)과 다른 간지(干支)와의 음양의 소식(消息)·소장(消長)과 오행의 생극제화(生剋制化) 관계를 가려서 부모·형제·배우자·자식과 같은 가족·혈연관계를 비롯하여 사회적 지위·명예, 인간관계, 지식·기술, 의식주·재산, 권리·의무, 수명·건강 등 인간생활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해석하는 것을 십성(十星)이라고 한다.

음양의 소식·소장은 천지음양이 끊임없이 들고 나며, 쇠하고 성하면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오행의 생극제화에서 생(生)은 인성(印星), 극(剋)은 관성(官星), 제(制)는 재성(財星), 화(化)는 식상(食傷)과 합화(合化)·충화(沖化)의 작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生)은 비겁(比劫)의 '조(助)' 작용도 함께 포함하여 '생조(生助)'라고도 한다.

표1-육신(십성)의 표출

육신(六神)	십성(十星)	생극(生剋)관계	음양(陰陽)구분
나[我]	육신(십성)의 주체가 반드시 일간(日干)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간지(干支)를 중심으로도 육신(십성)을 구분할 수 있다.		
비겁(比劫)	비견(比肩)	나[我]와 같은 오행	나[我]와 음양이 같다
	겁재(劫財)		나[我]와 음양이 다르다
식상(食傷)	식신(食神)	내[我]가 생하는 오행	나[我]와 음양이 같다
	상관(傷官)		나[我]와 음양이 다르다
재성(財星)	편재(偏財)	내[我]가 극하는 오행	나[我]와 음양이 같다
	정재(正財)		나[我]와 음양이 다르다
관성(官星)	편관(偏官)	나[我]를 극하는 오행	나[我]와 음양이 같다
	정관(正官)		나[我]와 음양이 다르다
인성(印星)	편인(偏印)	나[我]를 생하는 오행	나[我]와 음양이 같다
	정인(正印)		나[我]와 음양이 다르다

십성을 일간인 나[我]를 중심으로 둘씩 묶어 그 관계를 배열하면 '아(我)—비겁(比劫)→식상(食傷)→재성(財星)→관성(官星)→인성(印星)'이 된다. 이를 육신(六神)이라고 하는데 나[我]와 비겁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생하는 관계이며 하나를 건너뛰면 극하는 관계이다(그림 3). 육신(십성) 관계를 대개 일간인 나[我]를 중심으로 보지만 다른 간지를 중심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육신(십성)의 주체는 어느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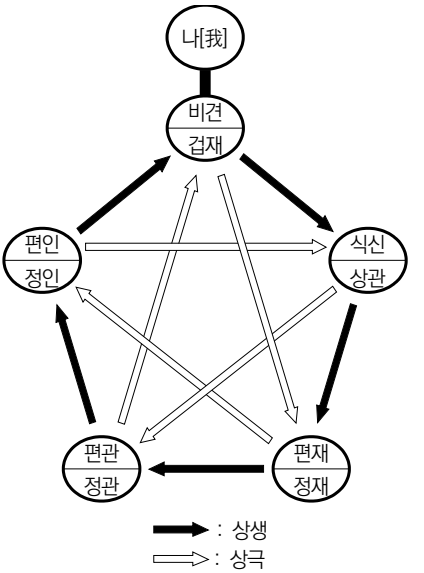

그림3-육신(십성)의 관계도

정은 기의 전제가 되고, 기는 신의 전제가 되고, 신은 정의 전제가 되며 유기적으로 상응한다는 점에서 사람 생명[몸]의 '정기신' 관계는 명리학에서 사람 운명(길흉)의 해석 요소인 '아비식재관인(我比食財官印)'의 육신 관계와 매우 유사한 의의와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나[我]를 기(氣)로 보면 '인성→**나·비겁**→식상'이 정-기-신의 관계가 되고, 식상을 기로 보면 '나·비겁→**식상**→재성'이 정-기-신의 관계가 되고, 재성을 기로 보면 '식상→**재성**→관성'이 정-기-신의 관계가 되고, 관성을 기로 보면 '재성→**관성**→인성'이 정-기-신의 관계가 되고, 인성을 기로 보면 '관성→**인성**→나·비겁'이 정-기-신의 관계가 된다.

『적천수천미』의 임철초 주(注)에 나오는 3가지 사주 예(例)를 통해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사주 명조(命造)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인 '통근(通根)'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 '통근(通根)'이란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에 뿌리를 내렸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천간에 丙火가 있는데 지지에 午火나 巳火가 있다면 통근이 된다. 寅木이 있어도 통근이 된다. 왜냐하면 寅木은 丙火의 생지(生支)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戊土가 있어도 약간의 뿌리가 되는데 戊중에 丁火가 있기 때문이다. 통근처는 대체로 지지의 삼합(三合)과 방국(方局)이 되는 자리이다.

지지 삼합: 亥卯未(木) / 寅午戌(火) / 巳酉丑(金) / 申子辰(水)

지지 방국: 寅卯辰(木·동방·봄) / 巳午未(火·남방·여름) / 申酉戌(金·서방·가을) / 亥子丑(水·북방·겨울)

표2- 천간(오행)의 통근처

천간(오행)	통근처	천간(오행)	통근처
甲乙(木)	卯寅亥辰未	丙丁(火)	午巳寅未戌
戊己(土)	午巳未戌辰丑(寅)	庚辛(金)	酉申戌丑(巳)
壬癸(水)	子亥申丑辰		

戊 **丙** 甲 癸 戌 寅 子 酉 戊 己 庚 辛 壬 癸 午 未 申 酉 戌 亥	① 인성(精): 甲·寅(木) ② **일간(氣): 丙(火)** ☞ 寅(木)이 장생지(長生支) ☞ 寅(午)戌로 午火가 공협(拱挾) ③ 식상(神): 戊·戌(土) ④ 월령: 子(水)월	정 **기** 신 **癸** ➡ **甲** ➡ **丙** ➡ (戌寅) (子) (寅) (寅戌) 정 기 신

그림4-예1 사주와 대운

예1 사주를 보면, 이 사주는 甲木을 정(精)으로 삼으니 쇠약한 木이 水의 도움을 얻고 寅의 록(祿)을 만나 정(精)이 넉넉하다. 戊土를 신(神)으로 삼으니 (戊土가) 戌에 앉아 통근(通根)하고 寅과 戌이 (午火와) 그것(戊土)을 껴안으므로[공협(拱挾)] 신(神)이 왕성하다.

관성(官星)[癸子水]이 인성(印星)[甲寅木]을 생하고, 인성이 신(身: 日干)[丙火]을 생하며, (일간 丙火가) 장생(長生: 寅木)에 앉아 있으니 기(氣: 丙火)가 두루 이어져 유통하며, 생화(生化)하는 오행이 모두 넉넉하고, 좌우·상하의 정(情)이 화합하며 어긋나지 않았다.

(그래서) 관성(官星: 水)이 와도 막을 수 있으며, 비겁(比劫: 火)이 오면 관성이 있고, 식상(食傷: 土)이 오면 인성(印星: 木)이 있어서 동서남북의 (木火土金水)운을 모두 가더라도 괜찮으므로 일생 동안 부귀복수(富貴福壽)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다.[81]

庚 **丙** 乙 癸 寅 辰 卯 未 己 庚 辛 壬 癸 甲 酉 戌 亥 子 丑 寅	① 인성(精): 乙·卯·寅(木) ② **일간(氣): 丙(火)** ③ 식상(神): 辰·未(土) ☞ 寅卯辰 木방국(方局), 卯未 木반합(半合): 辰未가 木으로 변화, 木 태왕(太旺) ④ 월령: 卯(木)월	癸 (×辰) ➡ 정 乙 (寅卯辰未) ➡ 기 丙 (寅) ➡ 신 土× (×) 정 기 신

그림5-예2 사주와 대운

예2 사주를 보면, 이 사주는 대세(大勢)로 살펴보면 관성(官星: 癸水)과 인성(印星: 乙卯寅木)이 상생하고, 편재(偏財: 庚金)를 시(時)에서 만나고, 오행

81 劉伯溫 저, 任鐵樵 증주, 袁樹珊 찬집(1997), 앞의 책, 〈精神〉, 129쪽. "此造以甲木爲精, 衰木得水滋, 而逢寅祿爲精足. 以戊土爲神, 坐戌通根, 寅戌拱之爲神旺. 官生印, 印生身, 坐下長生爲氣貫流通, 生化五行俱足, 左右上下情協不悖. 官來能擋, 刦來有官, 食來有印, 東西南北之運, 皆可行也, 所以一生富貴福壽, 可謂美矣."

이 모자라지 않고, 사주가 순수하니 엄연한 귀격(貴格)인 듯하다. (하지만) 지지에 [정(精)인] 寅卯辰(木방국)이 전부 있으므로[木이 태왕(太旺)하여] [신(神)인] 봄의 土가 극을 당해서 모두 없어졌다.

(癸)水는 木에게 모두 누설되어 [정(精)인] 목세(木勢)가 더욱 왕성하고 [기(氣)인] (丙)火가 치열하니, 火가 치열한즉 기(氣)가 죽고, 기(氣)가 죽으면 신(神: 土)이 말라버린다. 운이 북방(水운)으로 행하자 또다시 丙火의 기(氣)가 손상되고 도리어 木의 정(精)을 도우니 평생토록 보잘 것 없었고 명리(名利)를 이룬 것이 없었다.[82]

庚 **甲** 壬 壬 午 寅 寅 辰 戊 丁 丙 乙 甲 癸 申 未 午 巳 辰 卯	① 인성(精): 壬·壬(水) ☞ 辰이 水의 고지(庫支) ② **일간(氣): 甲(木)** ☞ 비겁: 寅·寅(木) ☞ 寅(卯)辰으로 木이 공협·방국 ③ 식상(神): 午(火) ☞ 寅午 火반합: 寅이 火로 변화 ④ 월령: 寅(木)월	정 **기** 신 **庚** ➡ **壬** ➡ **甲** ➡ **午** (×) (壬辰) (寅辰) (寅) 정 기 신

그림6-예3 사주와 대운

예3 사주를 보면, 이 사주는 『적천수천미』 〈지명(知命)〉에 나오는 명조이다. 기(氣)인 甲木은 寅월의 춘목(春木)이며, 정(精)인 두 壬水가 생하여 도와주고, 연월지(年月支)의 寅과 辰 사이에 卯가 끼어 있고[공협拱挾] 木방국이 되었다. 따라서 기(氣)인 甲木은 매우 왕상(旺相)한 세력을 얻었다.

---

82 劉伯溫 저, 任鐵樵 증주, 袁樹珊 찬집(1997), 위의 책, 〈精神〉, 129-130쪽. "此造以大勢觀之, 官印相生, 偏財時遇, 五行不缺, 四柱純粹, 儼然貴格. 〔…〕 支全寅卯辰. 春土剋盡, 〔…〕 水之氣盡洩于木, 木之勢愈旺而火熾, 火熾則氣斃, 氣斃則神枯. 行運北方, 又傷丙火之氣, 反助取木之精, 〔…〕 以致終身碌碌, 名利無成也."

庚金(관성)은 계절이 봄이라 수(囚)를 만났고, 앉은 자리가 午火라서 사(死)에 자리했고, 두 壬水가 있어서 휴(休)도 만났다. 따라서 庚金 관성은 매우 쇠약한 세력을 얻었으므로 용신(用神)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다.

쌀쌀한 초봄이라 [신(神)인] 火의 따뜻함도 필요한데 午火가 일시지(日時支)의 寅午 火반합으로 힘을 얻었고, 대운도 (巳午丙丁)火운으로 가므로 [신(神)인 火가] 더욱 왕(旺)한 세력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 사주 주인공은 丙午대운에 이르러 10여 만의 큰 재물을 모았다.[83] 그러나 예1 사주[일생동안 부귀복수(富貴福壽)가 아름다움]에 비해서는 부족함이 있다.

정리해보면 예1 사주는 정기신이 모두 넉넉하고 두루 유통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형평을 이루었으므로 일생동안 부귀복수했으나, 예2 사주는 양 끝의 정[癸]과 신[土]이 모두 허(虛)하고 부실한 반면 乙木[정]만 매우 태과(太過)하여 사주의 정기신이 유통되지 못하고 형평을 상실했으므로 일생 동안 명리(名利)를 이룬 것이 없었다. 예3 사주는 庚金[정의 정]은 허하고 부실하나 정(精)인 壬水가 힘이 있고 본래의 기신(氣神)이 모두 힘을 얻어 넉넉하므로 丙午火[神]운일 때 10여 만의 큰 재물을 모았던 것이다.

『적천수천미』〈정신(精神)〉과 〈지명(知命)〉에 나오는 대표적 3가지 사주 예를 들어 명리학에서 사람 운명을 해석하는 요소인 '아비식재관인'의 육신 계통을 『황제내경』·『동의보감』에서 사람 생명[몸]의 '정기신' 관계와 연관시켜 재해석해보았다. 그 결과 명리학의 '아비식재관인'은 동양의학의 '정기신'과 매우 유사한 계통적 구조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1과 그림3에서 관성[氣]이 인성[神]으로부터 설기(泄氣)를 많이 당하여 무력한데 재성[精]마저 없거나 허약하면 관성은 고립무원(孤立無援)이 되어 여성은 남편·직장·명예 인연이 좋지 않으며 남성은 직장·명예·자식 인연이

---

83 劉伯溫 저, 任鐵樵 증주, 袁樹珊 찬집(1997), 위의 책, 〈知命〉, 17-18쪽.

좋지 않게 되는 고관무보(孤官無輔)의 경우도 동양의학의 정기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간[氣]이 허약한데 상관[神]이 왕성하면 마땅하지 않은데 인성[精]이 힘이 있고 넉넉하면 일간의 기를 생해주고 상관의 신을 극하여서 정기신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상관패인(傷官佩印)의 경우도 정기신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명리학은 사람[人]이 태어날 때 하늘[天地자연]로부터 품부(稟賦)받은 기(氣)의 혼명(昏明)·청탁(淸濁)·후박(厚薄) 등에 따라 부귀·빈천·요수(夭壽)·현우(賢愚) 등 운명의 길흉화복의 대강이 정해진다고 본다. 그런즉 사람 생명의 근원이고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물질인 정(精)을 바탕으로 기(氣)가 원활하게 흐르고, 기의 작용을 통해 발현되는 신(神)이 상하지 않고 안정되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듯이 명리학에서 운명의 길흉을 해석하는 요소인 '아비식재관인'의 육신도 두루 이어져 유통하고 넉넉하면 부귀복수를 누리는 길한 명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은 기의 전제가 되고, 기는 신의 전제가 되고, 신은 정의 전제가 되면서 유기적으로 상응하는 동양의학의 '정기신'은 사람 운명을 추론하는 명리학의 '아비식재관인' 육신 계통과 연관을 지어 적용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올바르게 명을 해석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방법이 된다.

Ⅴ. 맺음말

『황제내경』은 사람 생명과 몸을 천(天)으로 대표되는 자연의 전체와 상호 긴밀하게 연계하여 인식하는 유기적 관점을 갖고 있다. 오운육기(五運

六氣) 학설과 마찬가지로 정기신 논의는 이런 천인합일·천인상감 사상의 구체적 표현이다. 『황제내경』에서 '정기신'을 이어서 함께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정기신론은 자연과 사람 몸의 관계에 대한 『황제내경』만의 상호 유기적 관점을 잘 보여준다. 『동의보감』은 병증(病症)을 중심으로 본 기존 의서와 달리 『황제내경』의 정기신 관점을 계승하여 사람 몸을 이루는 근본을 일관되게 '정기신' 구조로 파악하고 이를 완성하였다.

정은 사람 생명의 근원이고, 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원동력이며, 신은 생명이 발현되는 작용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다. 몸의 근본이고 생명을 있게 한 정에서 기가 나오고 기에서 신이 나오고 신은 다시 정의 전제가 되는데 이 모든 정기신이 머무는 집이 바로 몸[身]이다. 그러므로 정이 몸 안에 가득하면 기가 튼튼해지고, 기가 유통하고 튼튼하면 신이 왕성해진다. 신이 상하지 않고 왕성하면 몸이 건강하게 되고, 몸이 건강하면 병이 적어지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전제가 되며 상응한다는 점에서 사람 생명[몸]의 '정기신' 관계는 명리학에서 사람 운명의 해석 요소인 '아비식재관인' 관계와 매우 유사한 개념과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본 글에서는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의 정기신과 명리학에서 육신 계통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기신론을 명리학의 육신[십성] 해석에 적용하는 문제에 관해 고찰해보았다.

명리학은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천지자연]로부터 품부를 받은 기(氣)의 혼명·청탁·후박 등에 따라 부귀·빈천·요수·현우·길흉·화복 등 운명의 대강이 정해진다고 본다. 그런즉 사람 명(命)의 근원이 되는 정과 신 모두 기로 말미암아 주관되는데, 기를 보태주는[생하는 인성(印星)인] 정과 기를 덜어주는[설하는 식상(食傷)인] 신이 모두 이어져 넉넉하고 왕성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화를 이루면 바람직하여 그 명은 길하고 좋다고

본다.

이런 정기신의 유기적 상응 관점은 음양의 소식과 오행의 생극제화를 통해 인간 운명의 제반 요소들을 해석하는 '아(我)—비겁→식상→재성→관성→인성'의 육신 계통과 상통하며 매우 유사하다. 그러므로 명리학의 '아비식재관인' 육신을 동양의학의 '정기신' 관점과 연관하여 해석할 경우 부모·형제·배우자·자식과 같은 가족·혈연관계를 비롯하여 사회적 지위·명예, 인간관계, 지식·기술, 의식주·재산, 권리·의무, 수명·건강 등 사람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올바르게 추론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袁天綱五星三命指南』.

『周易』「繫辭上傳」.

『漢書』「藝文志」.

『黃帝內經素問』.

『黃帝內經靈樞』.

2. 단행본

김완희, 『한의학원론』. 성보사, 2003.

김필수·고대혁 외 옮김, 『管子』. 소나무, 2010.

박석준, 『동의보감, 과학을 논하다』. 바오, 2015.

유희 엮음, 김혜경·윤주영 역, 『동양 최고의 수학서, 구장산술』. 서해문집, 1998.

윤찬원, 『도교철학의 이해』. 돌베개, 1998.

장치청 저, 오수현 역, 『황제내경, 인간의 몸을 읽다』. 판미동, 2017.

허준 저, 윤석희·김형준 외 역, 『(對譯)東醫寶鑑』. 동의보감출판사, 2010.

홍원식 校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전통문화연구회, 1994.

홍원식 校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전통문화연구회, 2010.

徐升 편, 『淵海子平評註』.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6.

劉伯溫 지음, 任鐵樵 증주, 袁樹珊 찬집, 『滴天髓闡微』.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7.

3. 논문

고희상, 「『東醫寶鑑』의 生命觀 硏究: 精·氣·神을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국순호, 「東醫寶鑑의 精氣神에 關한 文獻的 考察」.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김만태, 「명리학의 한국적 수용 및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중권, 「『東醫寶鑑』의 文獻的 硏究: 引用文獻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제11집, 1995, 207-243쪽.

김종민, 「命理學 六親論에 관한 硏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박기진, 「黃帝內徑의 精氣神 硏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송기수·김종두, 「『黃帝內經』의 精·氣·神에 관한 小考」. 『대체의학회논문지』 제3권 제2호, 2014, 23-29쪽.
이상천, 「『適天髓闡微』 「六親論」에 관한 硏究」.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이재승·김만태, 「사주 십성(十星)의 계량화(計量化)와 활용에 대한 고찰」. 『문화와 융합』 제59호, 2019, 887-924쪽.

국문요약

『황제내경』의 정기신(精氣神) 관점을 계승한 『동의보감』은 사람 몸을 이루는 근본을 일관되게 '정기신' 구조로 파악하고 이를 완성하였다. 정(精)은 사람 생명의 근원이고, 기(氣)는 생명을 유지하는 원동력이며, 신(神)은 생명이 발현되는 작용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다.

정에서 기가 나오고 기에서 신이 나오고 신은 다시 정의 전제가 되며 유기적으로 상응(相應)한다는 점에서 사람 생명[몸]의 '정기신' 관계는 명리학에서 사람 운명 길흉의 해석 요소인 '아비식재관인(我比食財官印)'의 육신(六神) 관계와 매우 유사한 개념과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점에 주목하여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의 정기신과 명리학에서 육신 계통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기신론을 명리학의 육신 해석에 적용하는 문제에 관해 고찰해보았다.

명리학의 '아비식재관인' 육신을 동양의학의 '정기신' 관점과 연관해서 해석할 경우 부모·형제·배우자·자식과 같은 가족·혈연관계를 비롯하여 사회적 지위·명예, 인간관계, 지식·기술, 의식주·재산, 권리·의무, 수명·건강 등 사람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올바르게 추론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투고일 2019. 12. 19.
심사일 2020. 2. 7.
게재 확정일 2020. 4. 29.
주제어(keyword) 황제내경(黃帝內經, Huangdi Neijing), 동의보감(東醫寶鑑, Dongui Bogam), 정기신(精氣神, Jeonggisin), 명리학(命理學, Myeongli Science), 육신(六神, Six Gods), 십성(十星, Ten Stars), 사주명리(四柱命理, Saju Myeongli)

Abstracts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Jeonggisin* (精氣神) Theory of *Huangdi neijing* (黃帝內經) and *Dongui bogam* (東醫寶鑑) to Myeongli Science

Kim, Man-tae

The *jeonggisin* (精氣神) theory of *Huangdi neijing* (黃帝內經) was continued and completed by *Dongui bogam* (東醫寶鑑), which consistently viewed the *jeonggisin* structure as what fundamentally constituted the human body. In this system, *jeong* (精), the source of life, *gi* (氣), the driving force that maintained life, and *sin* (神), the manifestation of life, are seen as closely connected with one another.

Given the relationship among *jeong*, *gi*, and *sin*—i.e., *gi* comes from *jeong*, *sin* comes from *gi*, and *sin* again becomes the premise of *jeong*, while at the same time they organically interact (相應) with one another—the relationship among the *jeonggisin* of the human life (body) is similar in concept and structure with that among the Six Gods (六神) of *abisikjaegwanin* (我比食財官印), the elements of divination in Myeongli science.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jeonggisin* system of *Huangdi neijing* and *Dongui bogam* together with the Six Gods system of Myeongli Science and considers the application of the former theory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latter.

The findings suggest that this new method of referring to the *jeonggisin* theory of oriental medicine in the interpretation of *abisikjaegwanin* in Myeongli Science may prove to be a more correct, systematic, and reasonable way of inferring the various elements influencing human destiny, such as social status and honor, human relationships, knowledge and technology, food, clothing, shelter, and property, rights and duties, life and health, as well as familial and blood relations including parents, siblings, spouses, and children.